

| 미니 인터뷰 |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미래는 밝다

노동이 먼저 나서 기금 적립 시작하기로
[인터뷰] 김은겸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총무기획본부장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계기가 된 창원 경제 상황 어떤가?

일단 창원 경제는 조선업 쇠락에 영향을 받았다. STX조선해양이 몰락하다시피 했다. 실직자가 협력업체까지 많이 생겼다. 그리고 GM대우 창원 공장이 생산을 줄인다. SUV를 2021년부터 연 18만 대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비정규직을 계속 구조조정해 앞으로 정규직만 가지고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구조조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가 팔릴지 의문이다. 이것만 봐도 창원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기업의



매출이 줄거나 보합세이다. 매출이 늘어난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고용창출이 없다. 제조업이 약세니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한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일자리 연대기금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높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중소기업에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처우 측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더라도 대기업 노동자와 임금 소득 격차를 상당 부분 줄여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고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일자리 연대기금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가?

그렇다. 지금은 초기단계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연대기금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정도이다. 초기 단계에서 다음 발을 떼는 데 기금 출연이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일단 조합원들이 일인당 만 원씩 적립하는 형태로 노동이 먼저 나선다. 노동계가 나서서 좋은 일을 하는데 기업도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는 지금 백억 원 상당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시의 기금 출연은 상위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조례 제정 등의 형태로 가능할 것이다. 기금 적립 후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사용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연대기금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구체적인 결정들이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는 노정이 모여 3차까지 사회적 대화를 했다. 내년 1월에는 경총과 상공회의소까지 모여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그러면서 단계별 계획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서 어려운 지점은?

일단 노동이 참여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기금 적립 유도가 어렵다. 계속 입장을 듣고 설득도 하는 중이다. 사회적 대화는 아니지만, 우리 내부에서 대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위한 입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노동계가 주도해 기금 사업을 시작하면 경영계도, 시도 기금 적립 참여가 쉽다. 노동 안의 대화가 현재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다.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미래 효과는 무엇인가?

효과는 일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 정착이 잘 되면 파장 효과가 있다. 창원 안의 미래 효과를 생각해보자면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일터 혁신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나아가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자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원청에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 수준이 낮다. 노동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재해율이 높아지고 생산성 혁신은 이뤄지지 않고 다시 청년들이 가기 싫은 일자리가 된다. 방금 말한 선순환 구조는 이것과 반대의 긍정적 미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성장한 중소기업이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금 규모가 커지면 또 다른 중소기업에 투자할 역량이 커지는 것이다.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이 순항하기 위한 노사정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노동계는 기금 출연에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시는 지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만큼 시에서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협조가 끝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경영계는 1월에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과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다. 경총과 상공회의소는 각 기업이 기금 출연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기금 출연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한다면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이 나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이 만들어가는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 조합원들을 기금 적립에 나설 수 있도록 위원장들이 각 사업장에서 노력해야 한다.